

헌 사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12월에 『해상왕 장보고대사 제1177주기 추모 다례제』 행사에서 헌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다례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장보고 연구회 박봉욱 이사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례제 행사에 함께하여 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신종묵 경찰서장님, 김영암 해양경찰서장님, 조숙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역사이며, 완도군의 유구한 역사속에는 장보고대사의 얼이 깃들여 있습니다.

장보고 대사는 우리 완도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로써, 신해양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삶의 표본이며, 글로벌 무역인으로서의 성공과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했던 그의 숭고한 정신은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해상왕 장보고대사 제1177주기 추모 다례제를 통해 완도군이 한국 해양사의 성소로 거듭나고 해양문화관광의 발전을 위한 행사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장보고연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